

‘세상의 절반’ 참정권투쟁 깃발 높이들다

‘남자들만의 의회’ 맞서 여성투표권 요구 격렬투쟁 이끌어...영국 1928년에야 결실

안정숙 기자

19세기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해 발언한 당대의 드문 남성으로 기억되고 있다. 성에 의한 불평등이 인류의 진보를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라고 질타하던 그는 1860년대 말, 사회개혁에 뜻을 같이 하던 법률가 친구 리처드 마스텐 팽크허스트와 함께 최초의 여성참정권 법안을 만들었다. 팽크허스트는 1879년 맨체스터 태생의 에멀린 굴든과 결혼했다.

열네살 때 어머니가 데리고 간 여성참정권 집회에서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는 에멀린과 여성문제에 진보적 성향을 보이던 리처드는 이상적인 동지였다. 1889년 두 사람은 여성참정권연맹을 창설했다. 남편은 잉글랜드 북부지역에서 초창기 영국 노동당의 지도급 인사로 활동했다. 부부는 독립노동당 안에 맨체스터 여성참정권위원회, 기혼여성 재산권위원회 등을 만들어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지로 삼기도 했다. 남편은 1898년 세상을 떠났다. 대신 그는 에멀린 못지 않은 달변과 선동가적 자질을 지닌 세 딸을 아내 곁에 남겨 두었다. 첫 딸이 크리스타벨, 둘째 딸이 실비아, 셋째 딸이 아델라.

한 세기의 문지방을 넘으며 이들은 남자들이 이뤘던 의회가 여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간청하고 기다려선 무망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에멀린은 세 딸과 함께 1903년 맨체스터에서 여성사회정치연맹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창설했다. 이 단체의 참정권 획득운동은 이제까지와 달리 공격적이었다. 에멀린은 ‘납아빠진 선교사적 방법’을 버리고 “즉각적 참정권”을 쟁취하겠노라고 선언했다.

남편 세 딸 모두 여성권리 앞장

여성사회정치연맹이 맞은 최초의 효과적 선전기는 총선이 실시되던 1905년이였다. 그해 10월, 크리스타벨은 팽크허스트의 여공 애니 케니와 함께 자유당의 집회가 열리고 있는 맨체스터 자유무역회관에 나타났다. 들고 온 플래카드에는 단 한마디 뿐이었다. “당신들은 여성에게 투표권을 줄 것인가?” 물론 자유당의 보수주의자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고, 경찰을 불러 여자들을 끌어내게 했다. 그들은 구속됐다. ‘체포되기’는 크리스타벨의 작전이었다. 맨체스터의 대중적 정서는 두 수감자에게 동정적이었고, 그들은 감옥에서도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는 또 참정권 문제가 전국적 쟁점으로 비화하는 계기가 됐다.

선거의 승리는 자유당이였다. 1906년, 여성사회정치연맹은 공격대상을 자유당 정



검거되는 에멀린. 그는 여성참정권 획득운동으로 하원습격을 촉구하는 팸플릿을 돌리고 있었다.

부의 각료로 삼았다. 그러면서도 노동당과의 관계는 점차 느슨해졌다. 어머니로부터 조직의 대표 자리를 물려받은 크리스타벨은 1906년 10월 코커마우스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되자 “유권자들이 토리당에 투표하든 노동당에 투표하든 개의치 않는다”고 공공연히 발언하고 다녔다. 노동당 지지자들이 확실한 태도 표명을 요구하자 에멀린은 남편이 모퉁이 돌을 놓는 데 일조한 이 정당을 크리스타벨과 함께 탈퇴했다. 노동당의 계급적 기반은 ‘모든 여성’에게 접근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이들은 판단했던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기 참정권 운동은 20세기 내내 되풀이 될 질문을 붙잡고 있었다. 그건 모든 인간과 계급의 평등이나 성 평등이나, 인간해방이 먼저냐 여성해방이 먼저냐 파위로 변주되어온 하나의 모티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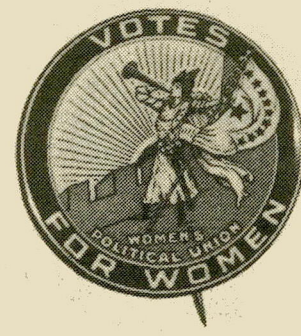
당시 영국은 노동계급의 보통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노동당은 ‘성인참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통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는데, 에멀

린 팽크허스트의 ‘즉각적 참정권’론은 우선 ‘지금 남자들이 누리는 것만큼의 권리’를 여자들에게도 달라는 것이었다. 그건 현재 투표장에 갈 수 있는 계급 안에서부터 먼저 성 평등을 실현하자는, 바깥 말하자면 부르주아 여성들의 참정권 획득이 최우선이라는 얘기였다. 노동당은 부담스러워했다. 노동자들이 부르주아들과 동등한 투표권을 확보 못한 상태에서 부르주아 여성까지 가세한다면 그만큼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고 표를 셈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천여성 의회·관청 습격·방화

여자들은 당연히 과실을 획득할 수 있을까. 에멀린 팽크허스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참고답안은 대서양 건너편 미국에서 1차 작성됐다. 19세기의 이 나라 노예제도 폐지론자중 여자들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1830년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노예제 반대운동 단체들은 이들의 가입을 금지했다. 여자들은 여성노예제 반대협회를 따로 만들어 노예와 자신들의 해방을 동시에 목표로 설정한 투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흑인 남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됐을 때 여자들은 자신들만이 전진대오에서 낙오되어 있음을 알게 됐다. 1910년 해리엇 스탠턴 블래치는 여성참정권 획득을 위한 미국 최초의 행진을 조직했다.

세기초 영국 페티코트 부대의 운동은 말 그대로 싸움이었다. 수천명의 여자들이 의회 진입을 기도했고, 관공서, 런던 웨스트엔드의 상가와 사무실을 습격했다. 에멀린 팽크허스트는 1908~1909년 세차례에 걸쳐 투옥됐다. 연맹이 방화를 주요 저항수단으로



미국의 초창기 여성참정권 운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배지.

택한 1912년에도 에멀린은 감옥에 있었다. 파리로 피신해 있던 크리스타벨이 이 여성들의 테러를 지휘했다.

에멀린 와일딩 데이비슨이라는 젊은 여자가 잉글리시 더비 경마가 진행되는 엡섬 다운스 경마코스에서 뛰어든 것은 이런 저항이 극에 달한 1913년 6월4일의 일이었다. 질풍처럼 내달리는 국왕 소유의 말고삐를 잡으려다 발굽에 밟힌 에멀린은 4일 뒤 숨졌다. 그는 에멀린 팽크허스트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그는 여성참정권을 위한 순교자가 되었고, 그 운구행렬 선두에 선 플래카드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여성참정권에는 전진만이 있다. 승리! 승리!”

에멀린과 크리스타벨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 전진을 중단했다. 연맹은 전쟁기금을 모금했고, 에멀린은 미국과 러시아까지 찾아 돌며 여성의 전시산업체 동원을 독려했기도 했다. 한편 에멀린의 동지이던 세 딸들은 전쟁 앞에서 각기 다른 갈래를 택했다. 크리스타벨은 에멀린과 노

선을 함께 했지만, 둘째 실비아는 노동자들로 편으로 갔다. 평화주의자로서 전쟁을 반대했고, 차츰 좌익으로 이끌렸다. 그는 뒷날 작가가 되어 어머니의 전기를 쓴다. 역시 사회주의자였던 막내도 1914년 어머니를 떠났다.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한 그는 빅토리아 사회당 창설에 앞장섰다.

전후, 1918년 영국은 남성의 보통선거를 인정하면서, 30살·중산층 이상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었다. 그러나 남녀의 동등한 투표권을 보장한 ‘인민대표법’이 통과되기까지는 10년을 기다려야 했다. 법안이 통과된 지 몇 주일 뒤, 에멀린 팽크허스트는 세상을 떠났다.

투표권 넘어 ‘평등’ 향한길 험악

영국은 여자에게 투표권을 준 최초의 나라가 아니다. 1893년 뉴질랜드, 한참 지나 1902년 오스트레일리아 여자들이 참정권을 획득했고,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여러나라와 미국 등이 영국을 앞질렀다. 그러나 영국 참정권 운동은 그 특유의 격렬함으로 논쟁을 선도하며 활력의 공급처 역할을 했고 모순 많은 에멀린은 그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20세기 세계종속국 각 부분에는 ‘투표하는 여자’가 속속 등장했다. 스페인 1931년, 프랑스 1944년, 이탈리아 1945년, 중국 1947년, 한국 1948년, 이란 1963년, 스위스 1971년... 이 여자들은 선거할 수 있는 권리만으로 ‘평등’을 누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고, 남아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들고 또 하나의 세기말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다.



1913년 ‘잉글리시 더비’ 경마장에서 에멀린 데이비슨(점선 안)이 국왕 소유의 말에 밟혀 죽었다. 그는 달리는 말의 고삐를 잡고 여성 참정권을 달라는 구호를 외칠 참이었다.